

# 성경 사본학과 학식의 깊이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공인본문(Textus Receptus, TR)과 개역성경, NIV 등의 근간인 천주교 소수 본문(수정 본문 혹은 비평 본문)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해서 글을 씁니다.

아마도 이분은 흥정역 성경 부록이나 팸플릿에 들어 있는 표 데이터를 보고 ‘정말 이 정도일까’ 하고 의아히 여겨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웨이트 박사님의 책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 책에서 발췌했습니다(37-40쪽).

----- 인용 시작 -----

7.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수용 본문(TR)의 5,600군데 이상을 바꾸었다.

나(웨이트 박사)는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1984년 8월 2일까지 앞서 말했던 스크리브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가지고 내가 직접 세어 본 결과 수용 본문과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비평 본문 사이에 5,604군데의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5,604개의 변화 중 1,952개는 빠진 것(35%)이고 467개는 더해진 것(8%)이며 3,185개는 바뀐 것(57%)이었다. 여기에는 이렇게 변개와 관련된 5,604군데 말고도 4,366개의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어 총 9,970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이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 이 숫자를 647쪽의 스크리브너의 그리스어 본문을 기준으로 나누어 본다면 페이지 당 평균 15.4개의 단어가 수용 본문에서 변경된 셈이다.

무어맨(Dr. Jack Moorman) 박사는 수용 본문의 단어들을 세어서 총 140,521 개라고 보고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변화들은 전체 단어의 7%이며 이것들을 모두 모아 놓으면 그리스어 신약성경 45.9쪽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표의 제목을 두 그리스어 신약성경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터’로 했다.

신약 성경 그리스어 본문 전쟁터:  
 〈그리스어 「공인본문」과 「수정본문」 비교〉

	공인 본문	수정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 군데 수정: (1,952 군데 삭제, 467 군데 추가, 3,185 군데 변경)
총 페이지 수	647	9,970 단어 변경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 단어 변경
변개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경
변개 분량	없음	총 46 페이지에 해당함

----- 인용 끝 -----

위의 작업은 1800년대 말에 만들어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질문하신 분에게 답하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스크리브너의 공인본문과 소수 본문의 대표인 네슬레-알란드(Nestle-Aland, 독일 식으로 네스틀레-알란트, 한국에서는 네슬 알란트 혹은 네슬 알랑으로 부름)의 26, 27판을 비교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몇 년 전에 28판이 나왔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함). 네슬레-알란드 판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의 뒤를 이어 1898년부터 110년 이상 판을 무려 28번이나 바꾸며 나온 소수 본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판이 나올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인간의 학식과 능력과 노력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 혹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을 보시면 국내에도 사정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36](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36)

이 두 본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22](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22)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38](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38)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시는 무어맨 박사님은 수용 본문(TR)과 네슬레-알란드 본문의 모든 단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비교하고 다 세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 본문의 단어가 수용 본문보다 무려 2,886개나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이 삭제한 단어보다 934개가 더 많음을 뜻합니다. 삭제된 2,886개의 그리스어 단어들을 영어 단어로 환산하면 베드로전후서와 맞먹는 분량이 됩니다.

무어맨 박사님의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2002년에 <8,000개의 차이>(8,000 Differences)라는 제목의 책(524쪽)으로 출판되었습니다.

[http://www.amazon.com/Differences-Between-Greek-Modern-Versions/dp/1568480547/ref=sr\\_1\\_1?s=books&ie=UTF8&qid=1459413487&sr=1-1&keywords=8000+differences](http://www.amazon.com/Differences-Between-Greek-Modern-Versions/dp/1568480547/ref=sr_1_1?s=books&ie=UTF8&qid=1459413487&sr=1-1&keywords=8000+differences)

무어맨 박사님의 치열한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 드리기 위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쪽과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다음 2쪽 참조).

사본학을 거론하며 무언가 중대한 사실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객관적인 데이터는 제시해야 합니다. 혹은 기존에 발표된 이런 위대한 학자의 자료보다 더 많거나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들고나와야 무언가 다른 주장을 해 볼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 몇 개를 수집하여 사이트에 올리거나 책을 내는 일로는 역사의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성경 사본 학자들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는 보통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 주기 위해 무어맨 박사님은 수많은 시간을 들여 두 본문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엄청난 수고를 마다치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어맨 박사님은 성경 사본학과 직접 관련된 수십 권의 책을 쓴 저명한 학자입니다. 아마존에서 Jack Moorman을 검색하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http://www.amazon.com/s/ref=nb\\_sb\\_noss\\_2?url=search-alias%3Daps&field-keywords=jack+moorman](http://www.amazon.com/s/ref=nb_sb_noss_2?url=search-alias%3Daps&field-keywords=jack+moorman)

저희가 출간한 <박사성경>은 이 8,000개 차이의 많은 부분을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본문에 표기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11](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11)

**Over 8,000 Differences Between the T.R. and the Nestle-Aland Greek N.T.**

**Textus Receptus-Scrivener**

**Nestle-Aland 26,27**

**Matthew 1:1**

the son of David

υιου Δαβιδ

**Matthew 1:5**

Booz of Rachab

Βοοζ εκ της ραχαβ

**Matthew 1:5**

and Booz begat

Βοοζ δε εγεννησε

**Matthew 1:5**

Obed of Ruth

Ωβηδ εκ της ρουθ

**Matthew 1:5**

and Obed begat

Ωβηδ δε εγεννησε

**Matthew 1:6**

and David

Δαβιδ δε

**Matthew 1:6**

the king begat

ο βασιλευς εγεννησε

**Matthew 1:6**

Solomon of her *that had been the wife* of Urias

Σολομωντα εκ της του Ουριου

**Matthew 1:7**

and Abia begat Asa

Αβια δε εγεννησε τον Ασα

**Matthew 1:8**

And Asa begat

Ασα δε εγεννησε

**Matthew 1:10**

and Manasses begat Amon

Μανασσης δε εγεννησε τον Αμων

**Matthew 1:10**

and Amon begat Josias

Αμων δε εγεννησε τον Ιωσιαν

**Matthew 1:13**

begat Eliakim

δε εγεννησε τον Ελιακειμ

**Matthew 1:13**

and Eliakim begat

Ελιακειμ δε εγεννησε

**Matthew 1:14**

begat Achim

δε εγεννησε τον Αχειμ

**Matthew 1:14**

and Achim begat

Αχειμ δε εγεννησε

the son of David

υιου Δαυιδ

Boes of Rachab

Βοες εκ της ραχαβ

and Boes begat

Βοες δε εγεννησεν

Iobed of Ruth

Ιωβηδ εκ της ρουθ

and Jobed begat

Ιωβηδ δε εγεννησεν

and David

Δαυιδ δε

begat

εγεννησεν

Solomon of her *that had been the wife* of Urias

Σολομωντα εκ της του Ουριου

and Abia begat Asaph

Αβια δε εγεννησεν τον Ασαφ

And Asaph begat

Ασαφ δε εγεννησεν

and Manasses begat Amos

Μανασσης δε εγεννησεν τον Αμως

and Amos begat Josias

Αμως δε εγεννησεν τον Ιωσιαν

begat Eliakim

δε εγεννησεν τον Ελιακειμ

and Eliakim begat

Ελιακειμ δε εγεννησεν

begat Achim

δε εγεννησεν τον Αχιμ

and Achim begat

Αχιμ δε εγεννησεν

**Over 8,000 Differences Between the T.R. and the Nestle-Aland Greek N.T.**

**Textus Receptus-Scrivener**

**Nestle-Aland 26,27**

**Revelation 22:17**

And let him that is athirst come

καὶ ὁ διψῶν ἐλθέτω

And let him that is athirst come

καὶ ὁ διψῶν ἐρχέσθω

**Revelation 22:17**

And whosoever will

καὶ ὁ θέλων

Whosoever will

ὁ θέλων

**Revelation 22:17**

let him take the water

λαβανέτω τὸ ὕδωρ

let him take *the* water

λαβέτω ὕδωρ

**Revelation 22:18**

For I testify

Συμμαρτυροῦμαι γάρ

I testify

Μαρτυρῶ ἐγὼ

**Revelation 22:18**

unto every man that heareth

παντὶ ἀκούοντι

unto every man that heareth

παντὶ τῷ ἀκούοντι

**Revelation 22:18**

If any man shall add unto these things

ἐάν τις ἐπιτιθῇ πρὸς ταῦτά

If any man shall add unto these things

ἐάν τις ἐπιθῇ ἐπὶ αὐτά

**Revelation 22:18**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τὰς γεγραμμένας ἐν βιβλίῳ τούτῳ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τὰς γεγραμμένας ἐν τῷ βιβλίῳ τούτῳ

**Revelation 22:19**

if any man shall take away from

ἐάν τις ἀφαιρῇ ἀπὸ

if any man shall take away from

ἐάν τις ἀφέλῃ ἀπὸ

**Revelation 22:19**

the words of the book

τῶν λόγων βιβλίου

the words of the book

τῶν λόγων τοῦ βιβλίου

**Revelation 22:19**

God shall take away

ἀφαιρήσει ὁ Θεὸς

God shall take away

ἀφελεῖ ὁ θεὸς

**Revelation 22:19**

his part out of the book of life

τὸ μέρος αὐτοῦ ἀπὸ βιβλίου τῆς ζωῆς

his part out of the tree of life

τὸ μέρος αὐτοῦ ἀπὸ τοῦ ζύλου τῆς ζωῆς

**Revelation 22:19**

and *from*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καὶ τῶν γεγραμμένων

*from*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τῶν γεγραμμένων

**Revelation 22:19**

in this book

ἐν βιβλίῳ τούτῳ

in this book

ἐν τῷ βιβλίῳ τούτῳ

**Revelation 22:20**

Even so, come, Lord Jesus

Ναὶ ἔρχου, Κύριε Ἰησοῦ

Come, Lord Jesus

ἔρχου, κύριε Ἰησοῦ

**Revelation 22:21**

The grace of our Lord

Ἡ χάρις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The grace of the Lord

Ἡ χάρις τοῦ κυρίου

**Revelation 22:21**

Jesus Christ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Jesus

Ἰησοῦ

잠언 30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Every word of God [is] pure:)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But he answered and sai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eth out of the mouth of God.

여기의 ‘말씀’(word)은 말 그대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순수한 모든 단어가 없다면 성경의 말씀들은 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글쎄요, 이러나저러나 결국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뭐 교리가 바뀐 것도 아닌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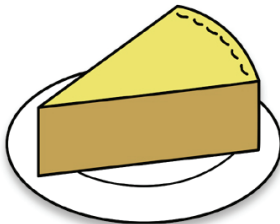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들이 바뀌면 교리가 바뀝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다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맨 밑에 있는 PDF 자료를 내려받아 보기 바람).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279](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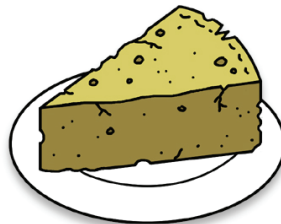
자, 여기 공인 본문(TR)을 가지고 만든 영어 성경이 있고 네슬레-알란드 26-28판을 가지고 만든 성경이 있습니다. 두 성경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에는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개와 비교해서 같은 것들은 서로 같다.

따라서 서로 다른 본문에서 나온 두 개의 역본은 서로 같을 수 없습니다.



다수 사본  
공인 본문  
KJB, 루터성경 등



소수 사본  
수정/비평 본문  
NIV, NASB 등

네슬레-알란드 본문을 아무리 잘 번역한다 하더라도 - 그것이 무슨 성경이든 - 그것과 무려 5,600군데 이상 (그리스어 단어로는 무려 10,000개 이상) - 차이가 나는 공인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웨이트 박사님의 말대로 NIV나 NASB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본문이 진리를 떠나 모든 면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들은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웨이트의 같은 책에서).

참고로 'Bible For Today'의 웨이트 박사님은 명문 미시간 대학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하였고 델리스 신학교에서 신약 그리스 문학으로 석사학, 성경 강해학으로 신학 박사학, 명문인 퍼듀 대학에서 스피치로 철학박사(Ph.D.)를 받았으며, 수십 년간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 정도의 학력이면 원어에 얼마나 능통할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단을 초월해 한국의 신학자들도 종종 논문과 기고문 등에서 이분의 의견을 인용할 정도로 저명한 분입니다. 현재 85세가 넘는 고령이지만 지금도 독립침례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biblefortoday.org/>

이분은 원어 학자이므로 늘 원어를 언급하지만 영어로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신뢰할 수 있는 성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은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을 보여 줍니다.

<http://www.amazon.com/Defending-King-James-Bible-Waiter/dp/1568480121>

이 책은 우리 출판사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누구나 PDF 파일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12](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12)

저는 웨이트 박사님과 그분의 교회에서 독립침례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수 받을 때 믿음을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가르치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의 책 부록에 실린 웨이트 박사님의 간증입니다(198-200쪽).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인용 시작 -----

질문: '번역과 관련된 이런 종류의 사역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때가 언제인가?

답변: 먼저 말해 둘 것은 번역 관련 사역이 내 사역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내 사역의 일부이다. 우리, 즉 BIBLE FOR TODAY는 본문 논쟁,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성경 보존 및 영감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900개 이상의 책자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매년 추가로 많은 타이틀이 더해지고 있음). 이것은 총 2,300개의 자료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신념은 확고하다. 나는 1971년 6월 「킹제임스 성경 옹호」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해당 주제에 대한 내 연구의 첫째 산물이었다. 그리고 보니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어언 35년이 되었다.

누군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필요해서!”라고 대답하고 싶다. 영어로 쓰인 가장 위대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은 현실에서 그냥 이대로 앉아 전투에 패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간 수많은 잘못이 저질러졌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 나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으로 교육받았고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BIBLE FOR TODAY라 명명된 사역을 시작한 것은 1965년의 일이다.

나의 배경과 BIBLE FOR TODAY의 배경을 다룬 소책자가 있다[B.F.T. #168]. 내가 매사추세츠 주, 뉴튼의 믿음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때 라디오 방송 하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BIBLE FOR TODAY였다. 이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지고(1965년, 성경은 물론 킹제임스 성경이다) 오늘날의 여러 이슈 - 낙태, 학교에 있는 여러 성경들, 공산주의, 구원 등 - 를 풀어가는 것이었다. BFT의 상장을 보면 왼쪽에는 어둠, 오른쪽에는 빛을 바탕으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방패(믿음의 방패), 방패 위에 검(성령님의 검)이 놓여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다. 이것이 초기 사역의 모습이였다. 참고로 BIBLE FOR TODAY News Report는 1971년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960년 NASB가 나왔을 때 의문은 이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일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일까?” 그래서 우리는 NASB를 검토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NASB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성경’ 즉 ‘The Bible for today’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9년 뒤, 1969년에 NIV라는 또 다른 역본이 탄생했다. 이때도 질문은 동일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성경인가?’ 물론 그즈음에 다른 여러 역본들 - 현대인을 위한 복음, ‘리빙 바이블’



등- 이 쏟아져 나왔다. 부록 B에 이런 성경 출판의 역사가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러다가 1979년에 NKJV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성경이 나왔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성경’일까? 이처럼 ‘성경’(Bibles)의 홍수 속에 살면서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고 규명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렇게 나는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성경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성경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이다. 대답은 이렇다. 오늘날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교리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학, 즉 성경과 교리의 연구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성경에 대한 믿음도 좋고 성경의 계시나 권위, 영감, 무오성에 대한 토론도 좋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그 성경이 어디 있는가?”이다. 그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말한 것이 죄인의 마음을 파고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발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자기 손에 있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 혹은 저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내가 확신하건대, 20, 21세기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공격이다. 이 공격은 에덴동산에서 마귀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으며 시작되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시험으로 이어졌다. 이때 사탄은 성경 기록을 거짓으로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주님은 성경 기록으로 즉 “기록된바...”, “기록된바...”로 이것을 물리치셨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성경 전쟁이 낳은 하나의 부작용일지 몰라도 오늘날 일부 크리스천들과 젊은이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그 성경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성경 중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없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확신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현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이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확신 곧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고 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한 성경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레기통에 내던져서는 안 된다. 킹제임스 성경은 잘못되지도, 시대에 뒤떨어지지도 않았다. 킹제임스 성경 같은 역본은 이제껏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일단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당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용했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들은 현재 우리 손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본문들이 전 세계 어떤 번역자에 의해서든 앞으로 다시 사용될 일은 없다.

내 말이 좀 막연히 들릴지 모르니 한 번 자세히 말해 보겠다. 현재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사용되었던 본문을 번역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성직 계급 체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즉, 대학, 신학교, 그리고 성경으로 돈벌이를 하는 출판사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배교자들과 현대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주의의 추기경들이 후원하는 본문이 그리스어 신약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 역자와 같은 번역자를 다시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거인들이라면 현대 번역자들은 소인국의 난쟁이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성경의 번역 기법 곧 문자적, 형식적 방법은 이제 퇴물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 방법으로 번역했다. 오늘날에는 동적 일치 방법이 일반적인 번역 기법이다. 누누이 말했지만 동적 일치 방법은 넣고 빼고 바꿔서 만든 의역이다. 자, 어떤가? 킹제임스 성경 같은 성경을 다시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는가? 내가 계속하여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나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세인트 매리에 있는 1,000와트짜리 출력을 가진 - 그레도 주당 30분에 \$13.5달러면 내가 들은 것 중 제일 싸다 - 조그만 방송국인 WVW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맡고 있다. 굳이 거기서 한 이유는 그곳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국 담당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 방송국에선 의사의 자유가 보장되니까?”였다. 그는 대답했다. “예, 얼마든지요. 다만 방송국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항상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성경 번역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30분짜리 주간 프로그램과 5분짜리 일간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15개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청취 가능하며 곧 위성을 통해 영국과 유럽, 캐나다, 그리고 남미까지 전송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글로 많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두 프로그램의 주제는 모두 ‘전통 성경 본문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뜨겁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내가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이오밍,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 있는 라디오 청취자들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한 건 아니다. 나는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로 인해 나는 일주일에 한 시간은 꼭 방송 테이프 녹음에 매달려야 했다. 그리고 녹음테이프를 우리 BIBLE FOR TODAY 독자들 - 현재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2,300명 정도 되며 우리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되어 BIBLE FOR TODAY News Report를 구독하는 사람들 - 에게 배포했다. 그 결과 녹음테이프를 통해 독자들은 나의 방송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상 나는 정해진 시간 동안 성경을 주제로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한 달에 네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여기 논의된 내용을 따로 녹음해야 했을 것이다. 물론 나에게서는 그럴 여력이 없다. 여러 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이 일 외에도 나에게서는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 손자들도 원한다면 방송 강연 테이프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테이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해 줄 것이다.

----- 인용 끝 -----

독자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 들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 성경이 그분의 모든 단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s)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수정판에 얽힌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한 리건 박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20](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620)

----- 인용 시작 -----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말씀이 있다.

----- 인용 끝 -----

존귀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자 성령님의 큰 평안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but my words shall not pass away.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The words of the LORD [are] pure words: [as] silver tried in a furnace of earth, purified seven times. Thou shalt keep them, O LORD, thou shalt preserve them from this generation for ever.